

석면 교실 · 안전사고 · 성범죄 노출 ‘불안한 학교’

국정감사를 통해 본 광주·전남 교육 현장

학교 석면 교체 광주 120년·전남 53년 걸려 수학 포기 여전...10명 중 4~5명 낙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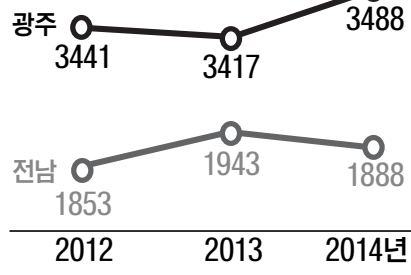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는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제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 의원들이 내놓은 지표와 내용을 통해 광주·전남 교육 여건을 가늠할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통계 수치임에도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보내는 게 썩 내키지 않을 정도로 ‘우울한’ 통계다.

◇불안한 학교=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2012~2014년 학교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2012년 3441건 ▲2013년 3417건 ▲2014년 3488건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도 ▲2012년 1853건 ▲2013년 1943건 ▲2014년 1888건 등으로 집계됐다.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월등히 많았고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많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2년 10만3653건이던 학교 안전사고는 지난해

11만6527건으로 증가했다. 학교안전지킴이 1명이 499명(광주), 347명(전남)의 학생들을 보살피야 한다거나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 TV(광주 707대·전남 1105대)가 사람 얼굴이나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저화질(40만 화소 이하) 장비라는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통계도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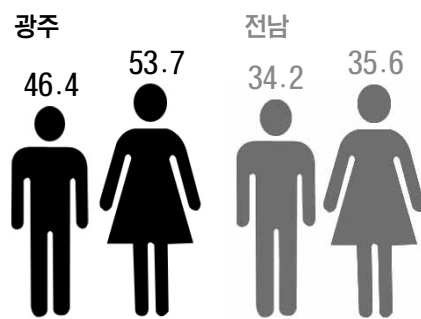
통학로도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광주 초·중·고등학교 69개교 주변 위험 현황을 조사해 등·하교 위험요인 94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관석 의원의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도 지난 3년간 광주(61건)·전남(64건) 지역에서 잇따랐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짐작할 수 있다. 광주지역 초·중·고 316개교 중 81.3%에 달하는 257곳에서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학

■2012~2014년 학교안전사고 현황 (단위:건)



자료 : 박혜자 의원실

■초·중·고교 화장실 설치비율 (%)



자료 : 이종훈 의원실



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현황 분석 결과도 심도 있게 한다.

◇열악한 학교=윤관석 의원의 시·도 교육청별 석면 조사 결과는 지역 교육 시

설의 열악함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전남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사용이

지난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1459곳 중 79.

8%인 1164곳이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로 지어진 학교로 파악됐다. 전국 평균(70.7%)보다 높은데도 열악한 교육 재정 탓에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도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로 지어진 357곳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6곳(71.7%)에 달해 열악한 광주의 교육 시설 현황을 드러냈다.

박혜자 의원은 더 나아가 2012~2015년 평균 투자 금액(광주 8억9600만원·전남 31억3700만원), 석면 교체사업 규모(광주 114만7921㎡·전남 177만6852㎡)를 분석, 120년을 기다려야 광주지역 학교에 사용된 석면을 교체할 수 있다는 ‘우울한’ 통계를 내놓았다. 박 의원 분석대로라면 전남도 53년을 기다려야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로 지어진 학교가 사라지게 된다.

학교 건물이 지진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 설비를 보강하는 사업도 광주는 123년, 전남은 76년이 걸릴 것으로 파악돼 학부모들을 서글프게 한다.

지난 5년간 학교 화장실 개보수에 1000억원 넘는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광주·전남의 불편한 초·중·고교 화장실 수준도 재차 확인됐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의 초·중·고교 화장실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학교의 화장실 설치 비율이 남자 46.4%, 여자 53.7%로 나타났다. 화장실은 쪼그려 앉아서 용무를 보는 일본식 변기로, 전남은 남자 34.2%, 여자 35.6%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여자 화장실 화장실 설치 비율은 경남(59.6%)을 제외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학생 10명당 변기 수도 학생 수에 비해 많이 모자라 광주(남자 2.0개·여자 1.5개), 전남(남자 2.2개·여자 1.6개) 등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여자의 변기 수가 남자의 변기 수보다 최소 1.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려운 학교=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특히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흥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2014년 전국 고등학교 1학년 과목별 성적 자료 분석 결과’는 광주·전남 학생 10명 중 4~5명이 수학 과목에서 낙제 수준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 고1 학생들의 수학 II 과목의 경우 낙제 수준의 D와 E등급은 전체의 43.8%에 달했다. 전남지역도 수학 D·E등급 비율이 55.3%로, 전국 평균(53.8%)보다도 높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조리에서 마케팅까지... 현장 경험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

호남대 인재양성사업단

‘리얼 월드 프로젝트’ 진행

‘현장 경험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표방한 호남대 한국형 복합리조트인재양성사업단(KIR사업단)의 운영 방향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호남대 KIR사업단은 21일부터 23일까지 영암 지역 전통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객실·식음·연회·조리 등 분야에 학생들을 참여토록 하는 ‘리얼 월드 프로젝트’(Real World Project)를 진행한다. 사업단은 이 프로젝트를 호텔경영학과·조리학과·중국어학과 학생 171명을 투입, 객실·식음·연회·조리 등 호텔 각 부서에서 현장 전문가 지도로 도어 서비스부터 총지배인까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학생들은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 맞는 연회상품을 기획하거나 행사에 적합한 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호텔 투숙객 유치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의 업무도 체험하게 된다.

사업단은 지난 8월에도 광주지역 한 레스토랑과 연계, 호텔경영학과, 중국어학과 학생 20명과 조리학과 학생 22명



훈련도 실천처럼

등 42명이 카운터·메뉴개발·마케팅 업무 등에 참여토록 하는 등 현장 지향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사업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현장 감각을 익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당 업무에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능력을 키

우는 한편, 향후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대 KIR 사업단 소속 학생 170여명은 21일부터 3일간 영암군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손님 맞이, 객실·식음·연회·조리 등 현장 전문가 지도로 전 분야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리얼 월드 프로젝트’(Real World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65주년... “강한 학교 만들 것”

학교법인 우암학원이 최근 학교 협동관에서 창학(創學) 6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설립자인 조용기(사진) 학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행사에서 “부모가 자식을 품고 가듯이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착한 강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암 조용기 학원장은 1950년 곡성군 옥곡면에 옥곡농민고등학교(현 옥곡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우암학원의 문을 열었다.

조용기 학원장은 지난 1926년 곡성군 옥곡면에서 태어나 순천농림학교와 조선



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퍼시픽 웨스턴대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50년 고창 옥곡에서 현 옥곡고등학교를 세운 이후 곡성에 전남과학대학교, 광주시에 남부대를 일구는 등 평생 교육사업에 매진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2~24일 전남대 ‘용봉대동놀이’ 축제

전남대 축제 ‘2015 용봉대동놀이’가 ‘Oh!樂(오락)’이라는 주제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힘들고 지친 일상과 취업·군대·스펙 고민에서 벗어나 즐겨보자는 취지로 ‘청춘사이다’, 천연 건강밤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아침밥 먹기 프로젝트’, ‘놀러오락’ 등의 프로그램과 느린 우체통, 외국인떡거리체험, 추석음식 만들기 등 행사가 진행된다.

청춘사이다의 경우 연애·취업·대인관계·꿈·대학생활 등 5가지 분야별 고민거리에 대해 유명 멘토가 아닌 주변의 상담 전문가를 초청해 상담해주고 ‘힐링의 노래’ 공연도 들려준다.

광주시민 장기자랑(23일), ‘100% 좋은 장터’(24일)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문화복합시설 · 펜션 · 식당 · 전원주택단지 **최고 장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능

■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능
(과거, 펜션/식당/박물관 운영함)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2441평 건882평 임6726평
- 낙찰 - 14억 9500만원(7명 응찰/2등 - 14억 9100만원)
등기비 - 7000만원
명도비 - 2000만원(5명)
기초공사 - 3000만원(옹벽공사/벌목 등)
기타 - 1500만원(대청소 등)
총 - 16억 3000만원
- 구매 - 17억 5000만원(조정 없음)
대출 - 12억 5000만원(2.1%, 월 219만원)
- 실제 인수금액 - 5억원
- 조건 - 9월 23일까지